KBO리그 구단들, 선수 연봉으로 본 '1승 비용' 차이



'고비용 저효율'은 어느 산업에서나 기피되는 말이다. 특히 '몸값'이 구단 운영에 절대적인 지분을 차지하는 프로야구는 특히 그렇다. 롯데 자이언츠는 올 시즌 팀 연봉이 전체 1위다. 그러나 고비용에 따르는 효율은 아직까지 의문 부호가 달려 있다. 스포츠동아DB

롯데 5억4916만 원 vs 키움 1억6820만 원

〈10개 팀 중 가장 비싼 1승〉 〈10개 팀 중 가장 경제적인 1승〉

연봉 효율 나타내는 1승 당 연봉 지출
연봉 최저팀 KT 1승당 1억9595만 원
선두 경쟁 두산 2억 1288만 원 지출
SK는 2억5664만 원…리그서 5번째

KBO리그 구단은 한 번의 승리에 얼마의 연봉을 지출하고 있을까.

그동안 메이저리그 빅 마켓 구단은 천문학적 숫자의 연봉 지급을 주저 하지 않았다. 슈퍼스타는 몸값이 높지만 더 많은 승리를 가져다주고 흥행, 광고, 중계권 등 수익사업에서도 큰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스몰 마켓 팀은 저비용 고효율을 추구한다. 아무리 좋은 성적을 올려도 빅 마켓 팀에 비해 중계권 수입이 턱 없이 낮다. 월드시리즈 정상에 오른 뒤 핵심 선수들을 '파이어 세일'로 떠나보내고 3년, 5년 뒤를 다시 기약하는 운영방식이 존재하는 이유다.

최근에는 빅 마켓 구단들도 합리적인 지출에 동참하고 있다. 거액 장기계약의 실패 사례가 더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 모기업에 의존도가 높은 KBO리그 구단 역시 최근 효율적인 연봉 지출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스토브리그 프리에이전트(FA) 시장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진 이유다.

올 시즌 각 구단이 1승당 얼마의 연봉을 지출하고 있는지 살펴보면 구단의 경영 성적을 간접적으로 평가 할 수 있다.

롯데 자이언츠는 리그에서 유일하게 선수단 연봉 총액이 100억 원(101억 8300만 원·외국인, 신인선수 제외)을 뛰어 넘는다. 27일 기준 1승 당 연봉 지급액은 무려 5억4916만 원에 이른다. 리그에서 가장 높다.

지난해 롯데는 7위로 시즌을 마쳤지만 1승당 연봉은 가장 높았다. 68승을 올렸는데 1승 당 1억5011만 원이었다. 포스트시즌에서 돌풍을 일으켰던 넥센 히어로즈(현 키움)가 1승당 8184만원을 지출 한 것과 비교하면 차이가 크다. 지난해 페넌트레이스 1위 두산 베어스는 1승에 1억375만 원을 썼다. 리그에서 4번째로 낮았다.

올 시즌 역시 롯데가 가장 비싼 1승, 키움이 가장 저렴한 1승을 올리고 있다. 시즌 30승을 돌파한 키움의 1승당 연봉 지출은 1억6820만 원이다. 키움의 선수 연봉 총액은 56억9400만 원으로 전체 9위다.

이어 팀 연봉 총액 10위(47억 6100만 원) KT 위즈가 1승당 1억9595만 원이다. 뒤를 이어 선두경쟁을 펼치고 있는 두산 베어스가 2억 1288만 원을 지출하고 있다.

연봉효율로 표현되는 1승당 연봉 지출액은 개막 첫 경기가 가장 높고 시즌 종료까지 계속 낮아져 최종 금액에 도달한다. 성적이 좋은 팀이 꼭 유리한 것은 아니다. 지난해 한국시리즈 우승 팀 SK 와이번스는 1승당 1억2400만 원을 지출했다. 롯데, KIA 타이거즈(1억3828만 원)에 이어 3번째로 높았다. 올해도 두산과 함께 선두싸움을 하고 있지만 1승당 연봉은 2억5664만 원으로 리그에서 5번째다.

이경호 기자 rush@donga.com



NC 노진혁

이호준 코치 첫 작품 '거포 유격수' 노진혁

타격폼 수정 후 장타율 리그 5위

NC 다이노스 노진혁(30)은 2013년 입단 첫 시즌부터 '수비 잘하는 유격수 유망주'로 꼽혔다. 3루와 2루도 커버가 가능한 쓰임새 많은 내야수로 인정받았지만 문제는 타격이었다. 성균관대학교에서 4번 타자를 맡기도 했지만 프로 투수들의 공은 수준이 달랐다. 팀과 함께 1군에 데뷔한 2013년 117경기에 기용됐지만 타율 0.223, 3홈런, 27타점으로 타격 성적은 평범했다.

그러나 2019년 노진혁은 전혀 다른 타자로 변신에 성공하고 있다. 27일까지 리그 장타율 5위(0.526)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홈런은 9개로 공동 5위, 팀에서는 양의지와 함께 공동 1위다. 2루타도 14개를 때리며 중장거리 타자로 맹활약하고 있다. 타점도 30개로 양의지(33타점)에 이어 팀에서 두 번째로 많다. 이제 50경기를 소화했지만 커리어 하이 시즌이었던 지난해(홈런 11개·42타점) 기록에 다가가고 있다.

NC는 주포 나성범과 코너 내야수 장타자 모창민이 부상으로 장기 결장 중이지만 노진혁이 활발한 타격을 펼치며 상위권에서 순위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노진혁의 변화에는 올 시즌 지도자로 변신한 이호준 타격코치의 믿음이 큰 역할을 했다. 노진혁은 "이호준 코치가 항상 '두려움 없이 자신감 있게 치라'고 한다. 힘이 된다"고 말했다.

이호준 코치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노진혁과 함께 클럽하우스에서 생활했다. 2016년은 노진혁이 군 복무로 잠시 팀을 떠났지만 프로데뷔부터 지금까지 항상 든든하고 믿음직한 맏형이었다. 이 코치는 '호부지'라는 별명이 보여주듯 현역시절 NC 선수단의 뛰어난 리더였고 코치가 된 지금도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지도자가 된 후에는 선수들의 장점을 더 살리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노진혁의 진화에는 기술적인 변화도 있었다. 프로 데뷔 후 팀 전력 구성상 좌타자로 콘택트에 초점을 둔 다운스윙에 집중했다. 그러나 점차 스윙 궤도를 어퍼 스윙에 가깝게 수정해왔고 올 시즌 새 타격 폼이 완성되며 새로운 거포 유격수로 발돋움 하고 있다.

이경호 기자 rush@donga.com

SK의 기다림과 복덩이가 된 고종욱

외야에 공백 생기면 공 샐틈 없이
타율 0.329·14도루 타선에 활력
정수성 코치 "악을 품고 야구한다"

"이런 기분 참 오랜만이네요."

SK 와이번스의 '복덩이'가 따로 없다. 갑작스러운 트레이드로 유니폼을 바꿔 입고 새로운 출발과 마주해야 했던 고종욱(30)은 기다렸다는 듯 자신의 길을 개척해나가는 중이다.

팀 내 꽉 찬 존재감을 입증하고 있다. 베테랑 김강민의 부상을 비롯해 외야진에 크고 작은 공백이 생길 때마다 이를 충실히 메워냈다. 어느덧 규정타석을 채워 타율 0.329(27일 기준)로 리그 5위에 올라선 고종욱은 14도루(1위)를 겸하며 팀 타선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덕분에 목표치로 설정한 한 시즌 개인 최다 30도루에도 성큼성큼 다가서고 있다. 고종욱은 "타격 순위권에 포함된 것은 2017년이 마지막이었다"며 "다시 온 기회라고 생각한다. 야구장에 나오면 '경기에 온전히 집중해서 이기고 가자'는 생각뿐"이라고 했다.



SK 고종욱

의심의 시선을 걷어냈다. 2018년 12월 삼각 트레이드를 통해 SK에 합류하던 때만 하더라도 '이 곳에 내 자리가 있을까?'라는 걱정이 앞섰다. 하지만 "책임은 우리가 진다. 너는 하고 싶은 대로만 하면 된다"며 울타리가 되어준 코칭스태프가 큰 힘이 됐다. 고종욱으로선 성적에 대한 부담을 느낄 이유도, 벤치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었다. 한결 편안한 마음으로 적응기를 거칠 수 있었던 고종욱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내가 먼저 '잘하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 하는 팀"이라고 말했다. 한편으론 "준비를 정말 많이 했다. 운좋게 상황이 맞아 떨어졌고, 기회를 주신 덕분에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었다"고 했다.

정수성 작전·주루코치는 미국 플로리다 스프링캠프에서 고종욱과 나눈 대화를 기억한다. 당시 정 코치는 "네가 먼저 이 악물고 보여줘라"라는 말을 했고, 고종욱은 "기회가 오면 악착같이 할 겁니다"라고 답했다. 평소 자신의 표정에 감정을 드러내지 않아 속마음을 알기 어려운 고종욱이지만, 정 코치는 별다른 말없이도 고종욱의 투지를 느낀다. 정 코치는 "겉으로는 티를 내지 않지만, 마음속으로는 악을 품고 야구를 하고 있을 것"이라며 "종욱이는 가만히 두면 알아서 잘하는 선수"라고 지지했다.

아직 보여줄 것이 많다. "올해도, 내년에도 잘해야 한다"며 스스로를 독려하는 고종욱은 "달리기가 빠르기 때문에 최대한 살아나가서 도루와 득점을 많이 하고 싶었는데, 잘 되고 있다"고 반겼다. 이어 "이제 상황에 맞는 배팅을 한다. 생각대로 잘된다면 앞으로 더 많은 것을 보여줄 수 있다. 아직 보여드릴게 많다"고 강조했다. "즐기고 있다"는 고종욱의 발걸음이 가볍다.

서다영 기자 seody3062@donga.com

이도형 메인 타격코치·조경택 코치도 1군 콜

28일 게임 브리핑

●정경배·조인성 코치 2군행

두산 베어스가 잠실 삼성 라이온즈전을 앞두고 일부 코치진 보직을 변경했다. 기존의 1군 정경배 타격코치와 조인성 배터리코치가 2군으로 내려갔다. 이도형 1군 타격보조코치가 메인 타격 파트를 담당하고, 2군 조경택 배터리코치가 1군 배터리를 책임진다. 김태형 감독은 "코치도 힐링이 필요하다"며 "2군에서 다른 부분을 볼 필요도 있다. 지금 분위기를 봤을 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 2군에 있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편 최주환은 4월 11일 1군에서 제외된 지 48일만에 엔트리에 등록됐다. 옆구리 부상으로 장기간 재활을 거쳤고, 최근 국군체육부대(상무)와 세 차례 2군경기에서 7타수3안타(타율 0.429), 1타점을 기록하며 실전 감각을 끌어올렸다.

●양의지 안방 복귀

NC 다이노스 양의지가 창원 롯데 자이언츠전 선발 포수로 나섰다. 양의지의 포수 선발출장은 17일 잠실 LG 트윈스전 이후 11일만. 무릎 부위 염증으로 그 동안 양의지는 벤치 대기와 지명타자, 대타로만 출장했다. 이동욱 감독은 양의지가 빠진 7경기 중 6게임(4승2패)에서 안방을 지켰던 외인 크리스티안 베탄코트에 대해 "벤치에서 볼 배합 사인은 주지 않았다. 베탄코트 본인의 계획대로 경기를 풀어갔다"며 "세번째 포수의 존재는 팀에 큰 보탬이 된다. 앞으로도 컨디션을 보고 적절히 포수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상문 감독, 서준원 재신임

롯데 서준원이 선발투수로 재신임을 받았다. 6일 1일 사직 삼성 라이온즈전에 선발 등판할 예정이다. 양상문 감독은 NC전에 앞서 "첫 등판치고는 괜찮았다. 선발투수로 준비 기간이 길지 않았지만 나름의 투구를 펼쳤다"며 "차츰 투구수를 늘리며 선발로 자리잡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준원은 26일 사직 LG 트윈스전에 프로 데뷔 후 처음으로 선발등판, 3.1이닝 5안타 2볼넷 4실점을 기록했다. 위기 속에서도 3회까지 실점을 막았으나 4회 4실점으로 무너졌다.

●안우진 29일부터 '강제휴식'

LG 트윈스전 선발 투수로 나선 키움 히어로즈 안우진이 29일부터 10일간 강제 휴식을 취한다. 안우진의 다음 등판 순서인 6월 2일 광주 KIA 타이거즈전은 우완 김동준이 투입된다. 장정석 감독은 "풀타임 선발 첫 시즌이다. 포스트시즌까지 완주하기 위해 계획된 휴식이다"고 밝혔다. 장 감독은 이미 좌완 선발 이승호에 대해서도 한 차례 10일간 휴식을 주는 등 선발진의 체력관리에 공을 들이고 있다.

편집 | 안도영 기자 do02@donga.com